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해를 향한 믿음의 신생활을 보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고 더욱 간절한 믿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2호 2013년 7월 2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여름방학을 신앙성숙의 기회로!

교육전문단체, “교사와 학생들을 동역자로 세워야” 제언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교육 부서의 움직임이 바쁘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비롯해 단기선교 등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와 교사들은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채우기 위한 고민이 높다. 여름 교육이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동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름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헌신과 사역은 필수다. 전문 사역자들은 교사의 헌신과 준비에 따라 여름교육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도우미로 인식되거나 여름사역의 물러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 사역자들은 여름행사 후 교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먼저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교사들 먼저 영적 충전...학생도우미 활용 현실과 조화 이루기 위해 후속모임 필요

따라서 담임목회자나 교육부서 담당자는 여름 사역에서 선행돼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사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전되고 여름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내가 소모품이 아닌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여름 교육의 계획과 진행은 목회자들이 담당하지만 학생들을 심방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사들의 몫인 것을 기억하며 교사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름방학을 맞은 목회자들의 우선 과제이다.

또 여름교육의 활성화와 신앙성숙을 위해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사역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여름수련회에 학생들을 동참시켜, 학생들이 원하는 수련회가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프로그램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심령을 새롭게” ...변화와 승리로 소원 이루자

12-14일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성료, 강사 양병희 목사

뉴욕교계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강사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는 “심령을 새롭게”라는 주제에 맞춰 사흘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첫날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는 대회를 통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노아의 87족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처럼 뉴욕교협과 산하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 가운데 강사로 오신 양병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뉴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집회는 이공삼 목사(예배분과위원장) 인도로, 경배와 찬양 뉴욕수정교회 찬양팀, 트럼펫 팡파레 유요선, 대회사 김종훈 목사, 특별연주 송술나무, 대표기도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영신도 부회장), 강사 소개 장영춘 목사(증경회장), 찬양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설교 양병희 목사, 헌금기도 황영송 목사(청소년분과위원장), 헌금특송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순대 장로), 광고 장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퀸즈칼리지 콜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가 강사 양병희 목사(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아래).



경배 목사(서기), 축도 최예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는 강사소개를 통해 “양병희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양심이라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밖에 모른다. 오직 목회일념으로 33년전 12명의 교인과 영안교회를 개척해 지금 2만5천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부흥사이고 목회자다. 우리교회도 2번이나 모시고 집회를 했으며, 그

때마다 양병희 목사의 영성에 힘입어 교회문제를 해결하고 든든히 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첫날 양병희 목사는 “심령이 변해야 산다”(엡4:22-2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신앙은 한마디로 변화다. 그러나 내 결심과 의지는 되지 않는다. 내 의지와 결심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은혜를 받아야 영혼과 육체가 사는 것”이라며, “심령의 변화에서 오는 3가지 신앙의 변화는 첫째, 심령이 변해야 새사람이 되며, 변화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다. 둘째, 심령이 변화하면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셋째 심령이 변하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역설했다.

13일 둘째 날 집회는 이성현 목사(호스팅분과위원장) 인도로, 경

배와 찬양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찬양팀, 대표기도 이재덕 목사(사업분과위원장),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부이사장), 찬양 뉴욕에일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양병희 목사, 헌금기도 허윤준 목사(영접분과위원장), 헌금특송 뉴욕교협솔리스트앙상블, 광고 박태규 목사(순서진행위원장), 장학금 전달식, 축도 양승호 목사(직전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15명의 학생들에게 각 5백 달러씩 수여됐다.

양병희 목사는 “고난을 유익으로 삼자”(시119:67-7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 간증이 되게 하자”며 “고난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고난이 오면 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기도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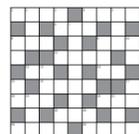
2면

‘뭇방’ 크리스천, 뜨는 아이린



9면

인터뷰 유태운, 김병영, 김병희 시신기증자



14면

삼자말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16면

은혜의 땅 에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영욱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 시론

## 에덴동산에서



양춘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해 봅니다.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좋은 학군, 안전한 동네, 깨끗한 주변 환경들이 우리 삶의 행복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여건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이 아닐까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고, 벌거벗었으나 자신이나 서로를 향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곳, 그 이름 자체가 “환희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상적인 낙원이 바로 에덴동산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첫 범죄는 에덴동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 있는 것을 즐기며 행복해 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불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3:16-17)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풍성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좋은 학군에서 자녀를 키우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의 소유를 지키며, 좋은 동네에서 자유롭게 살면 모두가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고 좋은 동네에 살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환승과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욕심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행과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고 겸손하게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몸짱’ 크리스천, 뜨는 아이콘!

## CT, 비만과의 전쟁 선포하는 ‘피트니스-드리븐 사역’ 분석

주일에 배를 마치고 나서 즐겨먹는 커피 한잔과 도너츠가 점차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과체중인 크리스천은 부끄러운 사람으로 점점 더 낙인되고 있다. 따라서 예배나 성경공부 도중, 즐겨 먹었던 도너츠, 피자, 감자칩까지도 교회에서 퇴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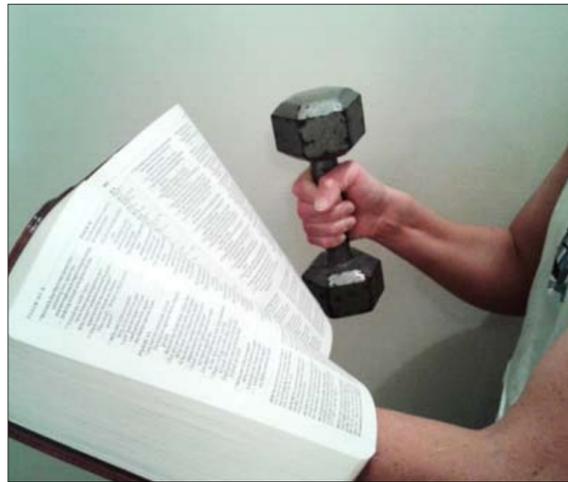
바로 다이어트, 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하는 ‘휘트니스-드리븐 교회(Fitness-Driven Church)’가 소위 잘나가는 교회들의 모토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1년 동안 거의 150파운드 이상을 식이요법, 운동으로 줄인 목회자까지 등장해 교인들에게 “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게으름”이라고 가르치면서, 살을 빼는 것이 목회의 전부인 교회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2007년 철저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1년 만에 무려 120파운드 체중 절감에 성공한 스티브 라인놀드스(Steve Reynolds) 목사가 바로 미국교회에 ‘피트니스-드리븐 유행’을 전파시킨 장본인이다. 별명이 “반 지방 목회자(Anti-Fat Pastor)”일 정도로, 교회공동체에서 ‘지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2007년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Capital Baptist Church) 교인 250명이 모두 12,000파운드를 줄이는 대역사를 기록했다.

라인놀드스 목사의 체중 절감 방식 역시 여니 피트니스센터나 코치들이 강조하는 엄격한 다이어트와 철저한 운동이다. 여기에 그는 십계명 중 하나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변용해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한다. 즉 “나 외에는 다른 음식을 섬기지 말라”... 라인놀드스 목사의 방식은 현재

하나님의 지성소인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교인들을 중용해 일반 피트니스 센터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다이어트, 운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목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최근 미국 교회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가볍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위한 제동을 걸고 있다(The Fitness-Driven Church: Across the county, congregations are whipping members into shape with highly marketed, faith-based health programs. What’s right - and troubling - about the trend).



Temple Wellness, Body Gospel). 교회공동체에 이처럼 다양한 스파크 프로그램으로 피트니스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

## 스티브 라인놀드스, 릭 워렌 목사 등 ‘다이어트 운동’ 사역화 건강한 몸이 신앙 가능척도로...경건의 ‘모양’ 만 주장 경계

‘피트니스-드리븐 사역’의 교과서다. 현재 교회공동체에서 실제로 회중들에게 제공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그룹 에어로빅스와 라인놀드스 목사가 만든 카운슬링이다.

미국 교회에 ‘피트니스-드리븐 사역’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다. 이미 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것을 지구촌에 확산시킨 베스트셀러 목회자로, 2011년 그는 ‘지방과의 전쟁’을 교인들에게 선포했다.

1년마다 3파운드씩 자동적으로 체중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들백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체중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선

릭 워렌 목사가 만든 피트니스용 성경공부 이름은 바로 “다니엘 계획(The Daniel Plan)”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궁정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한 사건을 따라 의도된 성경공부 교재다.

2011년 릭 워렌 목사의 ‘비만과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은 2년 동안 무려 27만 파운드의 살을 뺐다. 따라서 피트니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릭 워렌 목사의 성공은 곧바로 출판시장으로부터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따라서 2014년 ‘다니엘 폴란’은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현재 신앙을 바탕으로 교인들을 피트니스로 단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다양하다(Firm Believer, Bod4God, WholylyFit, Body’s

로, ‘피트니스 천국’인 미국인들의 심리를 제대로 짚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도 건강을 위해 살을 빼고,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야채, 저지방으로 조깅과 런닝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미국인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 몸을 만들자는 권면을 그야말로 솔깃한 제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앙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한 징표로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편 교회에서 제공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비만자국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임상학적으로, 미국 성인들 중 1/3 즉 35.7%가 비만이고, 이 추세가 계

속된다면 2030년에는 미국인 중 50%가 비만이 될 것이라고, ‘2012년 미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은 경고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미국인들 비만의 주 무대가 바로 교회이다. 2006년 퍼듀(Purdue)대학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들이 교회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무겁다는 통계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2011년 노스웨스턴대학 연구는 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비만에 빠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회자들 역시 비만을 피할 수 없다. 일반인들처럼 주중 40시간 근무가 아닌 계속되는 사역으로 어떤 때는 하루에도 5번 이상의 식사를 교인들과 함께 해야 하고, 운동과는 무관하게 사역에만 열성인 결과로 얻는 것은 심장질환과 비만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다. 오죽하면 2007년 듀크대학은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릴리 재단과 발전시켰다.

결국 목회자나 교인들이 비만을 만들도록 방조한 게으름과 같은 나태를 물리치고, 건강한 몸을 만들자는 것은 일종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돼가고 있을 정도이다.

신앙을 기반으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모토가 되고 있는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주어진 몸이

라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몸이기에 함부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몸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크리스천’답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과제가 주어진 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했던 다니엘처럼 미국인들에게 항상 유혹의 대상이 되는 풍성한 음식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3면으로 계속)

###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포)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66-4400(대포) (718)866-4424(편집국)  
 Fax:(718)866-0074(대포)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2013년 한국기독교, 어디로 가야 하나?

## 미래를 선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크리스천의 교회활동과 신앙생활 분석' 보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안팎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향을 통계자료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한국 교회와 교인에 대한 신뢰 또는 비신뢰의 정도와 그 원인, 그리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대략적 추측에서 오는 판단 오류와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주관적 주장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교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들을 신뢰할만한 리서치 전문기관들을 통해 얻고 있다. 먼저 바나리서치 그리고 퓨포럼, 라이프웨이 등 정기적으로 신뢰율 90% 이상의 통계나 자료를 얻어, 이를 목회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미준(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비기독교인(1,000명), 기독교인(1,000명), 목회자(500명),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20명)을 선정해, 한국 갤럽의 심층면접조사로 밝혀진 이번 통계는 한국 기독교의 현황과 평가, 문제의 진단 등에 있어 보다 입체적이며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 기독교는 상업적이라 믿을 생각이 없다

"종교를 믿을 의사는 있으나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상업적이라서' 19.5%, '믿음이 안 가서/신뢰도가 떨어져서' 12.2%, '자기중심

귀찮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부담스럽다', '거부감이 든다', '짜증스럽다' 등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더 이상 노방전도와 공공장소에서의 전도는 시대를 끌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되지만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 시대가 요구

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당신'은 뭐라 말하겠는가?

4.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교인을 교인답게

한국교회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 목회자, 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 미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이러한 낮은 신뢰도는 결국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으며 세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잃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성장을 멈추었고 쇠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장차 교회를 이끌 어갈 젊은이 어린 세대가 감소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기독교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점차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날 같은 시간 옆 건물에서 열린 어린이대회 참석어린이들이 특별찬양을 불렀다.

## “심령을 새롭게” ...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둘째, 나를 찾아야 한다. 고난은 연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오히려 감사를 찾아야 한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통로가 되지만 감사는 치유와 회복이 됨을 알고 용서하며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때도 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임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14일 마지막 날 집회는 황영진 목사(총괄위원장) 인도로, 경배와 찬양 퀴즈한인교회 찬양팀, 대표기도 이규섭 목사(연합선교위원장), 성경봉독 이주희 장로(이사장), 찬양 퀴즈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양병희 목사, 헌금기도 양민석 목사(순서지안내분과위원장), 헌금축송 뉴욕남성목사합창단, 선언문 낭독 김승희 목사(부회장), 광고 현영갑 목사(총무), 특별찬양 어린이할렐루야대회

참가어린이가 합창, 축도 장식진 목사(교문)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 양병희 목사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왕하2:8-9)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첫째, 먼저 길갈(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둘째, 베엘(하나님의 집)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소원을 이뤄야 한다"고 전하며 참석자들을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하며 치유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

2013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 "Power of God" 한편 성인 할렐루야대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 옆 건물에서는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가 열렸다. 강사 정승환 목사(퀸즈한인교회 교육목사)는 유스그룹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Power of God" 슬로건 아래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이해와 확신을 심어줬다. 특히 대회 참여 어린이 모두가 성인대회에서 마지막시간에 특별찬양하는 시간을 가져 부모들과 유대감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 공공장소 전도는 끝나...시대 맞는 전도패러다임 필요 신앙과 삶의 일치, 성공신화 등 근본적 내적갱신 절실

적이라서' 11.3%,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이 싫어서' 8.1%의 순으로 설문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지나친 한 모습일 것이다. 종교는 가지고 싶으나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개교회주의, 몰랑주의, 상업주의에 빠져서 거대한 뽕퐁아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하여 백번 양보해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2.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최근 1년 내 전도한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최근 전도한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웃/친척'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친구/선배' 42.6% 순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전도, 노방전도, 공공장소에서의 전도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독교인으로 부터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1.5%는 '

하고 원하는 방식의 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2, 30년 전의 전도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신자들의 표정과 반응에 대하여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이다.

3.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아닌 '나'란 존재를 세우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무엇이 삶의 진리인지를 강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과연 나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아닌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았다.

목회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삶과 신앙의 일치정도를 물어본 결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6%에 불과한 반면, 97.4%는 '일치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각 각에서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0.0%가 나왔다. 이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던 목회자들의 눈물 나는 고백이다. '목회자'가 아닌 '당신' 이

자는 목회자답지 못하며,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자만했고, 너무 과신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했고, 교만했다. 한국 교회는 성공신화에 빠져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교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국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설문을 통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의 현실, 교인들의 신앙 실태와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내일은 과거 부흥의 추억에서 깨어나서 오늘의 문제적인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내적인 갱신의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편집부)

## '뽕퐁' 크리스천, 뜨는 아이콘!

(2면에서 계속)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면 이제는 몸을 하나 닦아서 값 주고 사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피트니스 사역자들의 제안은 그야말로 뿌리치기 어려운 도전이다. 앞서 얘기한 듯이 '피트니스 천국'인 미국에서, 교회까지도 비만과의 전쟁을 신앙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중세시대 가톨릭 성직자들이나 신앙인들은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등, 고

행을 통한 금욕을 거룩과 영성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피트니스 드리븐 사역 역시 그러한 영성의 가벼운 상징이다. 그러나 음식을 가려먹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신앙인의 대표적인 그림을 일반 상업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생기고 잘 빠진 모델에 견줄 수 있는 '뽕퐁'으로 설정할 수 없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결론으로, 크리스천에게 항상 은혜이자 감사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현재 미국교회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피트니스-드리븐 사역'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실제적인 힘이 되길 소망한다.

## 여름방학을 신앙성숙의 기회로!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성경학교나 단기선교 등 준비모임에 함께 동참하게 된 학생들이 먼저 모여 기도회를 열게 해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함께 준비할 때, 동역자로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 은혜는 받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현실과의 차이로 절망하기 쉽다. 특히 교회학교와 청소년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괴리감이 크게 다가온다. 여름 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 하지만 똑같은 가정환경, 보충수업, 학원 공부 등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심한 영적 갈등과 공허함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후유증을 예방하고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속모임이다. 여름행사 이후 일상적 삶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후속 미팅이 큰 도움을 준다. 결국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후속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교육은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도 좋지만 교사와 반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 부목사 청빙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는  
PCUSA 소속 교회로서 Southfield, Michigan 에 위치하여 "3세대가 함께 제자 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북미주 목회 경험 있는 분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PCUSA 목사이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신앙고백서  
추천서 3통 (목회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밀봉하여 발송)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DVD/MP3 2 편  
학위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제출마감: 2013년 8월 31일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kpcmd.org

### 서류 보내실 곳

KPCMD APNC  
26492 Mandalay Ct.  
Novi, MI 48374  
email: kpcmd.apnc@gmail.com

# 플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Seeking English Ministry Pastor(Ordained Pastor)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지역에 위치한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는  
다음과 같이 플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KPCG is looking for a full time English Pastor with passionate heart for serving and providing leadership in College group and English Congregation Ministry.

### 1. 자격(Qualification):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신 분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학교이거나 준하는 학교) An accredited Seminary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1.5세와 2세와 영어회중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Passionate for 2nd Generation and English Congregation  
-언어(Bilingual Korean Speaker/Fluency in English required):  
이중언어, 특히 영어 설교와 영어로 사역하실 수 있는 분

### 2. 담당부서: 교육부, EM, 대학청년부

### 3. 제출서류(Application Requirement):

-이력서(Resume-includes family status with photo), 졸업증명서(Diploma of M.Div.), 목사안수 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추천서 2장(two Recommendation)직접 교회로 메일), 목회소견서(Statement of faith and vision for ministry), Recently, recording English Sermon(1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Application will not be returned)

-접수 마감: 8월 31일(Application Deadline)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vhanus@hotmail.com 참조 홈페이지 www.kpcgnc.com

-보내실 곳(Submit):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교육목사 청빙 담당자 앞

##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산소 공급

한국에서 꽤나 인기 있다는 '황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 한편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난 후 함께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야 하지?"라고 말하며 깊은 의문만을 남기는 영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할 만큼 큰 원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특히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본 후 꺼림칙 하게 남는 느낌이 아이들이 따라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을 낳았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만 했습니다. 10대의 한 소년이 살인 후 시체를 공업용 커터기로 훼손한 후 그것을 사진에 담아 친구에게 보내는 엽기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지만 '슈퍼맨' 영화가 한참 유행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손과 발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기가 발달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비정상적 행동을 배우고 따라하는 등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나, 폭력게임, 만화,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뇌가 자극을 받게 되며 이상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좌뇌는 좌 뇌대로 우뇌는 우 뇌대로 특이한 기능이 있으며 좌

우 뇌를 통하여 들어온 정보가 뇌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쪽 뇌의 기능이 특별히 발달되면(특히 만화,TV, 게임 등은 좌 뇌의 기능을 올려 줍니다) 좌 우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안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좌우 뇌의 불균형은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을 떨어지게 해서 불안, 초조, 불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등의 이상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Stress)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로부터 자극에 의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며 위험에 대처해 싸우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발달과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영양과 산소공급에 있다고 합니다. 영양은 음식물과 약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산소는 호흡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영양 공급에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호흡을 하는 수준이 아닌 신선한 공기(산소)를 받아야 된다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신선한 공기는 밖에 나가 활동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에 요즘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아이패드, 전화기, 등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해도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열심히 컴퓨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들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을 봅니다. 현대 문명에 노예가 되어 나쁜 행동을 따라하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기가 그 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이던가요 'Verb'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밖에서 활동하게 함으로 건전한 놀이문화와 신체발달을 돕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캠페인이라 생각합니다. 시편23편 다윗의 시처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동물들과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을 상상해 봅니다. 맑게 웃는 얼굴로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아이들을 그려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 푸 / 른 / 초 / 장

**하경남 목사**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태도다. 믿음이 생기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고 특히 입을 조심한다. 믿음이 생긴 거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다.

부자는 자유롭게 산다. 여행, 쇼핑, 고급 음식...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마 8:13). 주님의 말씀이다. 삶이 자유롭다. 능력의 삶이 자연스럽다. 믿음의 삶이다.

오늘 성경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다윗을 소개한다. 엘리압은 장남이요, 다윗은 막내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다. 당시의 기준으로 지도자 같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이새의 지도자로 삼으려 할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까지 흔들어버린 지도자같았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다. 중등부 또래의 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나이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소년이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나이의 차이도 아니요, 키의 차이도 아니요, 인물의 차이도 아니다. 태도의 차이다. 전쟁을 바

라보는 눈이 너무 달랐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랐다. 엘리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에 골리앗은 불가능의 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에는 어떤 돌을 던져도 맞힐 수 있는 덩치만 큰 밧이다. 태도의 차이이다. 이새와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다. 이새의 아들들도 전쟁에 징집되어 싸움터에 나갔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다. 손에는 상관에게 드릴 선물과 양식을 싣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 전쟁터에 왔다. 그때, 동생을 만난 엘리압은 첫 말부터 다윗을 책망한다.

1. 엘리압의 내면(28절)  
1)"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먼저 오랜만에 만난 막내 동생 다

윗을 본 큰 형 엘리압의 행동이 분노다. 분노할 이유도 없는데 화부터 낸다. 아무리 전쟁터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뜻밖에 동생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앞설 것이요 안부를 묻는 것이 정상이다. 어떻게 왔니? 아버지는 안녕하시니? 그런데 엘리압의 입에선 그런 정상적인 행동이 무

기되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먼저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지어 버린다. 마음이 조급하여 여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면이 많이 부서져 있는 사람이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마귀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한다. 내가 화를 내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

기를 사랑하며..... 조급하며"(딤후 3:4). 마음에 온통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지배자는 몰라도 지도자는 안 된다. 내면이 부서져 있다.

2)"들에 있는 몇 양을 누가 맡겼느냐?" 이 말은 다윗이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아버지 이새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식사자리에 끼질 못했다. 성경은 사울 왕에게 붙은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도록

## 지배자와 지도자

(삼상 17:17-30)

왕궁에 드나드는 다윗이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헬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삼상17:15) 이렇게 설명한다.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사울 왕의 정신과 의사다. 집에선 목동이지만 나가면 의사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왕궁을 출입하는 왕의 주치의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한 아들로써 충성을 다했다. 그야말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쳤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다. 그러나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는 전쟁만 크게 보였지, 몇 마

리의양을 치는 그런 일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희생이 따르고 중요해도 관심이 없고 무시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부서져 있는 사람이다.

3)"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 말은 지독하게 다윗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말이다. 다윗이 왕궁을 출입할 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들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합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버렸다? 구원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내면이 부서져 있던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2. 다윗의 내면(삼상16:13)  
다윗은 성령의 사람, 학교 다니기 전에 성령충만부터 받은 사람, 친구를 사귀기 전에 성령 충만 부터 받은 소년이다. 성령충만은 능력충만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윗은 형의 비난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히 얘기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언제인가? 모함 받을 때다. 무시당할 때다. 잊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모함할 때. 쉽게 포기한다. 내 돈 들어가면서, 무엇하러 욕을 먹느냐? 하면서 포기한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놀랄게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올 게 온 것처럼 당당하다. 성령의 능력이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한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골리앗이 밧으로 보이는 것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이런 다윗을 백성의 지도자로 쓰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원리다.

계 계시터이다"(삼상16:18).

어째서 다른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데 형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다윗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너는 교만과 악이 가득한 나쁜 놈이야. 네가 어려서부터 그러더니 역시 너는 별 수 없어." 이렇게 함으로 성령과 상관 없이 살아가는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한다.

삼상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오이코스 대학교 2013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안내

신학과 School of Theology		
학위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사과정 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	4년	고등학교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석사과정 Master of Divinity	3년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동등 학력자

음악과 School of Music		
학위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사과정 Bachelor of Music	4년	고등학교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석사과정 Master of Music	2년 (학부 비전공자는 3년)	학사학위 소지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본교특징

본교에 입학 후 2학기 동안의 예비과정은 영어로 전과정이 진행되므로 생활현장영어와 학습영어가 동시에 충족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 입학안내

가을학기 개강은 8월입니다. 특히 유학생 Visa로 전환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입학원서 제출기간 구비서류
- 2013년 8월 23일까지
  - 1. 입학원서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 3. 신앙간증문
  - 4. 추천서
  - 5. 재정증명서 (유학생)
  - 6. I-20 신청서 (유학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미국은 지금 짐머맨 케이스 무죄판결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루 평균 40명이 살해당하는 미국에서 유독 한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배심원단이 비무장 상태의 17세 흑인 청소년인 트레이본 마틴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히스패닉계 자경단원인 조지 짐머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6일 짐머맨은 플로리다 샌포드 자기 동네를 순찰하던 중 마틴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짐머맨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틴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2급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

은 인종 사이의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미국의 소수민족의 판도는 급격히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흑인의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12.6%다. 하지만 히스패닉은 13년만에 16%를 상회하면서 전체 비율에서도 3.8% 증가했다. 이제는 히스패닉과 라틴계가 흑인을 숫자적으로 능가한다.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인종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흑인에 대한 백인 히스패닉과의 인종차별의 논란이 된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의 숫자적인 구성원 6명 중에 5명은 백인, 1명은 히스패닉계라는 구성이 인종차별적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흔히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실문 응답자의 40% 이상이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특히 홍콩은 이 수치가 71.8%에 달했다고 한다. 동일 연구는 한국인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평화로우며, 단일민족인 국가임에도 타인종에 대한 관용도가 낮다고 했다. 한국인의 1/3 이상이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회학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이유를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최근 동남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제, 일본과의 뿌리 깊은 대치관계도 원인으로 판단했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사실 인종차별자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에게 대한 저주를 인종차별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들을 지적한다. 성경의 선민사상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의 계보에는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흑인은 구원의 역사에 포함됐다. 성경

지 않는다. 같은 종족에서 임의로 선출한 두 사람간의 유전자 차이가 다른 종족 간에서 선출한 유전자 차이보다 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더 진화된 인종'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인종차별에 대한 생물학적 논쟁은 진화론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인종차별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요3:16, 히2:9).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셨다(마28:19-20; 눅24:47). 구원의 역사는 인종을 초월한다. 4)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말2:10; 엡4:4-6).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인종으로 분리하여 서로 차별 할 수 없다. 5) 여호와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피부색깔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삼상16:7). 따라서 인종적 편견이나 우월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6) 황금율은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눅6:31; 마7:12).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지금 이슬람 신도들은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한 달간이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성에서 장 집사

**A:** 이슬람이란 단어는 순종 혹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또한 평화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률에 순종하는 결과로 평화가 주어진다 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사는 자는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해 있든지 이슬람교인(무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마단 금식은 올해는 7월 9일부터 시작되어 30일간 금식이 계속되며 흰색과 검은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금식은 열 살이나 열두 살 때부터 시작되며 이슬람 라마단 금식월에는 전국 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며 금식에 참여한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한달간 금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분발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리에는 대죄와 소죄가 있는데 대죄는 이 라마단 금식기도를 할

### 마호메트의 한달 동굴기도에서 유래... '역 라마단 기도' 필요

때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라마단을 알려면 이슬람의 5가지 신앙의식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정규적으로 지킨다면 알라에게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신앙의 선포(shahadah). 이것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선지자(사도)라는 신앙을 두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슬람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2. 매일 5회 기도(Salat). 기도하기 전에 정결예식이 지침대로 정해지는데 이것을 우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기도방향은 메카 쪽인데 5회의 정규기도는 기도문 암송과 의식적인 행위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자의 언어에 상관없이 아랍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3. 희사금(Zakat). 이슬람에 따르면 모든 무슬림들은 구제금을 내야 합니다. 구제금은 원래 무슬림공동체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실천적인 선행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 자신이 고아였기 때문에 버려진 자, 가난한 자 공평한 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제금의 양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수입의 1/40 정도입니다. 4. 라마단 금식(Saum). 5. 순례(Haji). 무슬림은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이슬람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인 하지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해마다 몇 백만의 무슬림들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메카의 이 순례의 길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라마단 금식기간에 무슬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 라마단 기도'라고 합니다. 1996년 8월1일 모슬렘을 위한 30일 라마단 금식기도기간에 세계적으로 5백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권을 위해 역 라마단 기도를 했습니다. 25개 언어로 번역된 30만부 이상의 기도안내서가 30개의 각 지역 담당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모슬렘의 구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모슬렘 지역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가지의 믿기 어려운 기적과 환상, 꿈, 그리고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모슬렘들의 간증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들로 모슬렘을 향해 선교하도록 소원과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 짐머맨 케이스 인종차별 논쟁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회(NAAACP)의 로슬린 브록은 "오 늘 정의는 트레이본 마틴이나 그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는 미 법무부가 마틴을 상대로 감행된 인권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도시에서 배심원단의 판결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P, CNN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14일 조지 짐머맨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를랜드, 뉴욕, 워싱턴DC 등 주요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냉정을 되찾고 자체를 당부했지만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복합적인 논쟁의 불을 붙였다. 배심원 제도의 문제, 인종차별, 인종간 갈등, 또한 총기사용에 의한 과잉 정당방위 등의 문제에 대한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타부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다. 특히 이번 사건

지는 않다. 고대사회부터 시작해서 인종에 대한 편견은 늘 있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기록은 기원전 2천년쯤에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기록에서 주변 민족들과 이집트인을 비교하는 자료들은 당연히 '이집트가 최고'라는 내용이다. 그중에서 자기들을 귀찮게 하거나 전쟁을 치른 민족들은 적대적으로 적혀 있었다. 남부에 살고 있던 누비아 흑인에 대해서는 경멸과 멸시가 가득했다. 인간형태를 지닌 짐승처럼 묘사해서 처음 해독했을 때 원숭이에 대한 묘사인줄 알았을 정도였다. 기원전 1500년 전 이집트에서 투트모세 1세는 남쪽의 누비아를 정복한 뒤에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문서화해 기록한 셈이다.

한국도 인종차별에서는 세계적인 랭킹이다. 두 명의 스웨덴 경제학자들이 경제발전과 인종차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인종차별 의식을 수치화 할 필요를 느껴 만들어진 것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다. 연구는 경제발전과 인종차별은 큰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인도, 요르단, 홍콩이 인종차별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을 인종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인종차별은 죄악된 인간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은 아니다.

성경은 인종차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이 비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자.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창1:26-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는가? 2) 성경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셨다(행17:26). 인종차별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발전된 것이다. 성경대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다고 믿으면 모두가 다 한 뿌리이다. 실제로 인간유전자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에 참가했던 과학자들도 만장일치로 "오직 인류라는 한 인종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선포했다. 현재 인종을 구분 짓는 것은 피부색이나 머리 눈 빛갈 등 대부분 외형적인 것들이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의 인종간 차이는 많아야 0.01%정도 밖에 되

라고 하셨다. 인종차별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을 해서선 안된다. 7)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마22:39). 바로 사랑의 대상인 이웃 속에는 우리가 차별하기 원하는 사마리아인도,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8)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롬10:12). 마찬가지로 인종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9장의 무지개 언약을 땅위의 온 인류에게 행하셨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약속하셨다. 이사야 11:9-10에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였다.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셨다. 아가예수탄생 후 유대인 선지자 시므온을 통하여 누가복음 2:30-32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했다. (8면으로 계속)

# 순복음 복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증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 안수
    -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1) 제출 기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2)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3) 고시 장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 ###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 및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목회서신

초월적 사랑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기독교 성지 두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성지와 개신교 성지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두 곳은 도보

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 도시 시절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분이 꼭 찾아보고 싶다고 해서

얼마 전에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약 15년 만에 방문해보니 주변 경관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들도 많이 들어섰고, 전철노선도 새로 생겨서 옛날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절두산 순교성지를 살펴본 후,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1893년 10월 24일에 개설된 이후, 현재 500여 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매장된 선교사는 영국인 선교사 존 헤론(John W. Heron, 1856-1890)입니다. 헤론은 1885년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와서 1890년 7월 여름에 순직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의료선교에 헌신했는데, 그만 이질에 걸려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방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헤론은 자신의 조국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으며, 자신의 가족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헤론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 자신도 그 거룩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H. B. 헬버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양쪽이나 귀족 혹은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영웅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묻히기를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헬버트는 그곳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루비

켄드릭(Ruby Kendrick)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분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졌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자신들의 삶을 희생한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보이콧, 기독교계 이탈 가속화

동성애자 임회를 허용한 미국 보이콧이 기독교계의 이탈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보이콧의 대안 단체를 표방하는 가치 '온 마이 아너(On My Honor)'가 오는 9월 6-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온마이아너는 동성애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보이콧이 아닌 전·현직 인사들이 설립하는 단체다. 창립자 존 스텔버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규약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성적 정체성'보다는 '성적 순결'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직 보이콧 단장, 이글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 최고 영예) 대원과 그 가족 등 3만명 이상이 벌써부터 가입 의사를 밝혔다. 온마이아너는 창립총회에서 단체명과 로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된 뒤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 보이콧은 지난 5월 연례회의에서 동성애자 청소년의 입단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1910년 창립 이후 동성애자를 배제해오다 회원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성애자를 수용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주요 지지 세력인 남침례교가 지난달 절연을 선언하는 등 조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 한국전 노병들, 정전 60주년 고별행진

런던 한복판에서 한국전 정전행진 60주년을 기념하는 영국 노병들의 도심 행진이 열렸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300여명은 11일 버킹엄궁 인근 근위기병대 연병장인 호스가드 광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1km 구간을 행진하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



영국 국방부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BKVA)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노병들의 사열식과 도심 행진에 이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행진이 열린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쟁 당시 20대

였던 노병들의 연령은 이제 80대를 넘어 이번 행사는 사실상의 고별 행진으로 관심을 끌었다.

참전용사들은 이날 정복차림으로 호스가드에 집결해 기병대 및 군악대 등과 함께 정부정사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행진했다. 기념예식은 왕실을 대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리처드 알렉산더 글로스터 공작과 마크 프랑수아 국방부 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회식 예배의식으로 거행됐다.

한국에서는 임성남 주영대사가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를 대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영국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었고, 한·영 두 나라가 신뢰를 쌓아온 발판이었다"며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사는 영국 참전용사 대표와 함께 사원 내부의 영국 무명용사 예도 헌화했다.

참전용사인 아서 비숍(91)씨는 "60여년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영국 정부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BKVA)는 올해 행사에 참석하는 최연소 참전용사의 연령은 81세로 페어데인 인원도 지난 2003년의 2천여명에서 7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6천 명을 파병해 1천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이집트 검찰, 무슬림형제단 의장 체포령

이집트 검찰이 10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의장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메나(MENA) 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또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의 예삼 엘 에리안 부대표의 체포 영장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카이로 공화국수비대 인근에서 무르시 지지 시위대가 군인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00명도 불잡아 살인과 폭력 조장,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당시 이집트 군부는 "테러리스트가 공화국 수비대 본부를 습격하려 했다"며 시위대에 발포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54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아들리 만

수르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 당국이 새 검찰 총장으로 카이로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히삼 바라카트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무르시가 집권 기간 임명한 압델 마귀드 마흐무드 총장은 전날 사임했다. 무르시는 현재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카멜 아르프 이집트 외무장관은 "무르시가 안전한 장소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다"며 "그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르시는 지난 3일 군부에 축출되고 나서 카이로 공화국수비대의 한 병영 시설에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반동성애' 곳곳이 지키는 러시아의 힘

보수적 전통의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는 '반(反)동성애' 기조를 곳곳이 지키고 있다.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외국 동성커플들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1일 AP통신이 전했다. 자국 아이가 동성커플에 입양돼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비전통적 성행위(동성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러시아 의회는 올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프랑스에서 동성결혼법이 발효되자 시기를 앞당겨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에서 러시아 고아들을 입양하는 것을 우려해 법 제정을 서두른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법인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 루블(3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터키무슬림, 스마트폰 앱으로 라마단 지켜

이슬람 성월(聖月)이자 단식월인 라마단 기간을 맞은 터키의 무슬림들이 의무사항인 금식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는 10일 라마단이 시작된 9일 금식 시작과 해제 시간 등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Ramazan 2013' 앱은 2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라마잔(Ramazan)은 라마단의 터키어다. 또 '라마단 시간표'란

뜻인 'Ramazan imsakiye 2013' 앱도 7만 차례 내려받았으며 다른 라마단 관련 앱들도 상당히 많다.

이 앱들은 터키 종교당국이 발표한 시간표를 이용해 금식 시작시간과 해제시간, 라마단 기간에 자주 쓰이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선택해 정확한 금식 시작과 해제시간을 설정하는 기능과 해제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타이머 설정 기능도 갖췄다.

터키의 앱 개발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라마단 앱 다운로드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터키에서 라마단이 시작된 9일 관련 앱들의 다운로드 횟수가 지난해 라마단 기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일몰 이후에 식사한다.

터키 국민의 99%는 주미증의 종교란에 이슬람이라고 기재하지만 라마단 금식을 지키지 않는 무슬림도 20-30%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는 외국인도 많이 낮에도 식당은 대부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미국 목사, 교회부임 앞두고 노숙인 체험

담임목사 부임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숙인 체험을 한 목회자가 있다. 16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윌리 라이 목사(사신)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상호 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확정된 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이 목사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업신여김 받는 삶을 살아보고, 그 경험을 새로운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라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 한 푼 없이 클락스빌 중심가로 나가 5일 동안 노숙인으로 살았다. 그는 어디에서 자야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지 배웠고, 거리 사역자들이 나눠주는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게 됐다.

노숙인 체험을 마치고 지난달 교회에 정식 부임한 라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진실에 눈 감지 않는다면 노숙인과 가난한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와 해결책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신학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익안

##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7)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의 역할이 기능 중심이라기보다는 포지션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교회나 주일학교의 조직은 직위를 나누는 것에만 치우쳤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보다는 직년에는 누가 했으니까 올해는 당신이 하지 식의 조직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시스템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학교

의 조직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모든 일을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형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장이 너무 많은 일을 맡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주일학교의 시스템은 기능을 중심으로 일을 골고루 분배하고 또한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바로 투입해야 할 것

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주일학교의 시스템은 기능을 중심으로 일을 골고루 분배하고 또한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바로 투입해야 할 것

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대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 예배실행, 행사실행, 교사지원, 학생지원 등입니다. 여기에 신앙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은사를 따라 배치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집중하므로 말미암아 사역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활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꾸준히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 개인교육, 위탁교육 등입니다. 일반교육은 교회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는 것이고, 개인교육은 심방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교사를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은 주일학교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기능, 예를 들면 찬양인도, 드라마 운영, 비디오 활용, 동화 구연 등과 같은 기능을 외부 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에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담임목사가 되는 일이 사역자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배웠고, 또 그런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교육을 위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를 찾기 위해 사람이 수조문 해본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사람을 찾았는데 비참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30대를 넘어선 청소년 사역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숙한 교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험으로 알지만 20대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고 본받아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새롭고 창의적인 사역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참으

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는 곧 기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그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교육은 그들을 통해 발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한인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서구의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발전과 성장 및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면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받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교회 안에 있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세한 파고를 넘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돕기 위해, 또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기 위해 교회교육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  
▲이메일: kimanhy@hanmail.net

### 주일학교 시스템, 기능중심으로 분배하고 전문성 살려야 교회교육전문가 양성 지속적 교회사역 제도적 장치 마련

로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필자는 오늘날 교회 성장의 한계가 곧 여기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전문적 다양성을 갖춘 시스템을 가지지 못한 것은 교회 발전의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효율성이 떨어

오늘날 교회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역

### 칼럼 음악목회 ⑥

#### 헤비메탈과 뉴에이지 음악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헤비메탈을 듣는 사람을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비메탈은 극도의 음악적 흥분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헤비메탈이라는 말은 그 소리에 대한 표현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충동하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는 말로서, 철관용 자동차 지형으로 쾅어내는 시끄러운 디트로이트(Detroit)의 조립 라인의 격렬한 소리를 내는 기타의 화음이라는 뜻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록 음악의 비평가 리스터 밴스(Lester Bangs)는 특별히 "극대화된 팝 음악의 모습이 매우 왜곡된 모습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형식에 있어서 자극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발악하는 소리와 근본적으로 요란스러운 기타 소리, 그리고 외설적인 내용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더욱 해석적인 표현은 롤링 스톤(Rolling Stone)이라는 잡지에서 특적으로 다루었는데 "헤비메탈은 무력함과 청년 남녀들의 상징, 그리고 성적인 히스테리와 같은 것에 대해 전자 기타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음악이다. 헤비메탈은 고상한 예술일 수는 없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헤비메탈은 음악 이상의 것으로서 헤비메탈은 가수들의 몸짓과 오상스러운 무대장치를 통해 기원하는 우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파괴를 조장하며 분별력이 없이 행동으로 옮겨 감간이나 폭력 또는 마약과 자살 등 심각한 상태를 유발케 합니다. 더욱이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무분별한 수용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과 취향성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 드려 지고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들은 병적 상태에 이르게 되나 이러한 음악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은 대중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었습니다. 록 가수들의 앨범이나 노래의 가사 그리고 분장과 악세서리, 무대 장치와 상징적인 마크 등을 통하여 사탄의 사악한 모습을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였는데 그것 보다는 음악의 본질 속에 있는 영향력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록 음악의 본질은 음란과 성적 폭력과 리듬의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의 도덕적인 절제력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록 음악보다 더 위험한 음악이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대중음악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동안 록 음악이 더욱 시끄러워져 가면서 한편으로 사탄은 록 음악과는 상대적으로 분위기의 음악을 준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사탄은 거친 껍질 속에 부드러운 비소를 준비해 놓았는데 비소는 복용할수록 사망으로 인도하는 극약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분명히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반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진 음악입니다. 결

코 록 음악처럼 시끄럽거나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킬만한 외모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고 섬세한 웃음 입은 음악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오피드 속에는 사악한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음악의 목적은 인간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하며 마음속에 있는 대자아를 발견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인간이 신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흥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음악에 심취하게 되면 영적인 체면 즉 악령을 만나게 되고 성격이 변하고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이 가득차게 됩니다. 이 음악의 특징은 묘한 소리(전자악기)로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지나간 일을 회상케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도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이즘 사조가 곧 극단적 개인주의로 접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종교적 다원주의로 발전하고 결국 뉴에이지브랜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범신론과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물론 특별히 음악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음악의 물결이 크리스천뉴에이지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속문화의 장르들이 무분별하게 교회로 들어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사역자들이 음악적인 재능만이 아니라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신학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45.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

지난 6월말 우리 “빙하시대 탐사” 팀은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을 지나왔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있었던 탐사 팀은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만 했다. 너무 더워서(129oF/54oC)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동쪽에 있는 Death Valley(데스밸리)다. 세계 최고 기록은 100년 전인 1913년 7월 10일이 Death Valley에서 세워졌는데 134oF(54.7oC)였다.

혹은 편현상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 2. Death Valley의 고온 현상

Death Valley의 고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자 두 가지는 이 지역의 고도와 산맥이다. 데스밸리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 공기는 두 개의 산맥을 더 넘으면서 더욱 건조하고 온도가 더 올라간 상태로 저지대인 Death Valley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원인이 더해지는데 Death Valley 분지의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열교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여름철 온도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 3. 추위와 더위의 기원

Death Valley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다. 풀 한 포기 볼 수 없는 지형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일까?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세상에 포함되는 것일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이런 세상을 주시면서 하신 것일까? Death Valley에서는 이런 질문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막’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30회가 나오는 데 그 중에 어느 경우도 사막을 좋

기는 공기의 흐름이고, 기압 차이는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옷을 입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바람도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를 언급하는 때가 있는데 노아 홍수 직후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둬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 창조 당시에도 계절과 낮과 밤이 있었지만(창 1:14) 추위와 더위는 노아홍수 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추위와 더위는 사람의 수명이 900년 이상에서 홍수 후에 450대로 급락한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아홍수 이후에 온도 차이가 더욱 커졌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기온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수명에 크게 상관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동물 실험 결과들과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노아홍수가 현재와 같은 기온 차이를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방주에서 나온 동물

## 추위와 더위는 바벨탑 사건 이후 빙하시대부터 극명 노아홍수이후 환경파괴, 인류분산, 기온 차로 수명단축



### Death Valley의 폭염과 성경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과 Death Valley는 전혀 맞는 상황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 그리고 언어 혼돈과 빙하시대를 거친 후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들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와 똑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명하셨다(창8:17). 노아홍수 직후의 환경은 지금처럼 생물들이 멸종될 상황이 아니었다. 인류의 역사에는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빙하시대다. 이 사건 이후 지금과 같은 극한(-89oC)과 극서(6 oC)의 온도차이가 생겨났고, 사막이 생겨났으며, 사람의 수명은 450대에서 250대로 또 한 번 급락했고, 계속 더 줄어들고 있으며, 생물들도 종류에 따라 계속 멸종하고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노아홍수의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인한 철저한 환경파괴, 바벨탑 사건의 죄로 인한 인류의 분산과 극심해진 추위와 더위, 그리고 계속된 우리 조상들의 죄의 터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위 죽겠다’, ‘추위 죽겠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 때도 있지만 이런 때는 그래도 살만할 때다. 정말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나를 사랑하여 이 미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극락(시 43:4; 고전2:9)을 준비해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오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사랑받는 복된 여인

사랑하는 주님,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여인의 진정한 미가 무엇일지를 생각합니다. 사라는 분명코 외모도 아름다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아내가 예뻐 생명을 잃을까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주라 칭하고 늘 남편을 세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사랑 하기 나름대로 제가 받지요. 남편이 죽으면 죽는 시늉까지도 마다 않고 순복하니 하나님이 직접 두 번이나 나서서 저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를 지켜주셨지요.

아~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에 남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그냥 눈감고 지나가 주는 통 넓은 여인이었지요. 아마도 그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짝 짝 못하는 기체가 됐을까요? 그래서 늘 죽어지내지만 않고 적당한 때 질투하여 인간의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요. 하갈을 구박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저라면 아무리 남자 파워가 센 옛날이라도 마음대로 그런 남편을 주라 부른다는 것이 쉬웠을까? 생각해봐도 무자한 여인의 뼈를 깎아 들어가는 서러움과 아픔을 생각합니다. 단산하여 죽은 자 같은 여인이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무조건 아들주시겠다 약속하신 남편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넘길 수 있었을까? 주신 약속대로 노년에 아이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나크게 받은 여인... 복의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있지도 않은 인내를 부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해내셨지요.

주님으로 인해 아이를 받고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웃으며 아브라함의 그림자같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나는 귀한 반려자, 행복한 어머니, 따스한 여주인으로 누렸을 37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보여도 25년에 비하면 한배 반이 됩니다.

이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어쭙잖은 저의 성공 사역관, 목회관을 내려놓습니다. 놀라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열국의 아비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열국의 어머니됨을 영광으로 여기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기쁘게 적절히 저를 돕는 자신의 자리를 지혜로이 충성스레 섬기도록 주님의 온유한 심정을 붙들듯이 주어 주소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의 아내들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같이 남편을 마음에서 진실로 주로 칭하는 겸손의 옷을 영원토록 입혀 주소서. 남편을 주로 섬기는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를 누리는 영광을 평생에 부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과 방언과 열방에 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를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신다(갈3:26). 인간의 장벽이 너무 강하기에 주께서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은 없다. 사실 현재 우리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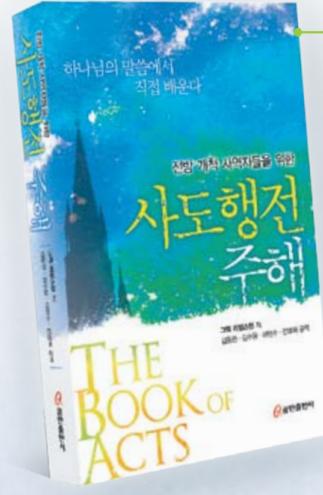
드러온 인종차별의 벽은 너무 커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단코 큰 장벽이 아니다. 하지만 인종장벽의 벽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롬2:11; 엡 6:9; 골1:17; 약2:1). 외모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외모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종차별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라고 명하신다(고후5:18-19).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복음의 등불을 들자!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문 양장



###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 미기총 새 대표회장에 임형태 목사

## 제15회 정기총회 4개 지부 공동회장 등 선출

제15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이하 미기총)가 지난 9일과 10일 덴버 중부장로교회(담임 최훈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첫날에는 개회예배 및 만찬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는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사회로 미기총기 입장, 조도식 목사의 기도, 서기 유영일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막,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공천위원회의 회장단 공천 및 인준, 임원선출 및 신규임원 교체, 대표회장 임의사, 신인 대표회장 취임사, 신년도 사업 인준, 신안건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새 임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임형태 △상임회장: 김동욱 △공동회장: 서부/한기홍(수석), 남부/정인수, 동부/김종대, 중부/유영일 △사무총장: 황경일 △총무: 심평중 △서기: 윤사무엘 △부서기: 송성섭 △회계: 주성철 △부회계: 민경협(이상 목사).

각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교회일치화합추진위원회: 최낙신 △신학연구위원회: 정성욱 △노후대책위원회: 조도식 △상호친목위원회: 김종훈 △선교정책개발위원회: 강승호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장성민 △사회봉사참여위원회: 김용배 △2세



회의를 마치고 총대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자양성위원회: 박용덕 △남북선교협력위원회: 전영현 △대외협력위원회: 황준석 △북한교회재건위원회: 고택원 △정의사회평화인권위원회: 조일구 △조국통일위원회: 박찬순 △이단대책위원회: 이종명(이상 목사) △전국평신도지도자협의회: 김일경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경희 △전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 유지선 △장로 △전국기독교문화예술위원회: 이다윗 목사

역대 대표회장으로 구성된 고문은 다음과 같다. 1대 박희소, 2대 방신학, 3대 심항구, 4대 나윤태, 5대 서삼정, 6대 방지각, 7대 정인찬, 8대 김택용, 9대 신현국, 10대 한기형, 11대 이영섭, 12대 장석진, 13대 송정명, 14대 황의춘(이상 목사). 상임회장은 1대 김원삼 목사, 2대 전영현 목사이며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인덕 김남수 김도석 김득렬 김만우 김선배 김영길 김용주 김인식 김경국 김종원 김진태 김해중 김성웅 노재상 박영장 박재영 박희민 변영익 송영성 서재승 신성국 신의철 심관식 심만수 안수훈 안재도 오관진 윤병호 이기홍 이문구 이성재 이영재 이성근 이승만 이승태 임동선 임동하 정지훈 정영현 정구훈 정영서 정지환 조덕현 조석환 조천일 지선목 천방욱 최낙신 최대원 최영환 최훈진 한재홍 현인덕 황수봉 황준석(이상 목사).

이외에 이사장직: 최대원 장로 △삼사: 이재호 목사 △자문번호사: 황삼열 목사 △세계기총(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정관위원: 황의춘, 장석진, 전영현, 임형태(이상 목사)로 구성했다. (기사제공: 미기총)

# 인/터/뷰 유태운, 김범영, 김병희 사신기증자

## "사신기증으로 하나님 사랑 실천"



사신기증에 동참한 유태운 집사, 김범영 집사, 김병희 장로

사신 기증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이고 있는 가운데 3명의 사신기증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신기증자는 최근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신기증캠페인에 동참한 유태운, 김

유 집사는 "죽음을 맞이한 이후 사신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이 땅에 남기게 될 의미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신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삶 마감 후에도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일 찾아

영, 김병희 씨. 이들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고민을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나라에 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았다. 삶이 마감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신들의 사신을 통한 선행이라고 말한다. 일반인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태운 집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각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소망소사이터티를 찾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는 세미나를 통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성영라교회에 출석중인 이범영 안수집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음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도움을 손길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에 비해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된 것이 사신기증"이라며, "인간의 사신은 땅에 묻히면 50일정도 후면 썩어 없어지게 된다. 육체가 썩어 없어지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신기증을 하면 대학병원 등에서 해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신기증에 동참한 전 라구나우즈한인회 회장 김병희 알바인 새생명교회 장로는 "미국에서 43년간

살면서 느낀건 미국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가 주는 환경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했다"고 사신기증 동기를 밝히고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기 바친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증된 사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사신기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모두들 없었다고 말했다. 유태운 집사는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것 같아 가족 물려 했는데 그 소식을 가족들은 매우 놀라웠다. 그러나 사신기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니 가족들도 잘했다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유 집사는 "처음엔 장기기증을 생각했다. 그러나 70세가 넘는 사람의 장기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노쇠한 장기는 기증할 수도 없기에 사신기증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육체는 노쇠했지만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한사람의 사신이 200명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니 사신기증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영 집사는 "이번 사신기증은 나 자신 외에도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아내도 동참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신기증은 크리스천들이 사후에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말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신기증에 동참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글로리아 찬양단 제4회 정기공연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주제로

글로리아찬양단(지휘 오위영 목사) 제4회 정기공연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98:1) 주제로 14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개최

됐다. 이날 공연은 글로리아 찬양단이 '신의 영광-Ludwig van Beethoven', '승천-Doug Holck', '가라마세-우효원', '그가-우효원',

'승전가-Peter J. Withousky', '살아계신 주-Bill Guither' 등을 불렀으며 테너 김성봉, 소프라노 김영안, 테너 김일도, 엘토 원순일 등이 나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콘서트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이치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358-8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b>뉴욕목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n.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LX 곽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och.com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매주 수, 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i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강습: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988-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q.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기타지역 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9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밴앨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목사: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영어) 주일, 유년, 노년: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8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b>살롱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8(박스경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attle.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lcc.org	<b>앵커리지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스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8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9th St,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큰루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제자훈련: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새벽 6:00(토) Tel: (253)58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3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템파자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www.kpcpz.com Tel: (480)726-0195,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회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www.kucp.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b> <b>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2013년 KWMC 제26차 전국년차총회

KWMC(세계한인선교대회,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26차 전국년차총회가 오는 11월 4일(월) 오후 5시부터 6일(수) 정오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에서는 KWMC 각 운동본부 및 위원회와 협력기구들의 사역들을 나누며 앞으로의 KWMC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여러 선교현안에 대한 특강들이 열리게 된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총회참석을 위한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는 프라미스교회에서 담당한다. 교통비는 자비부담. 사진 등록이 필요하다. 기타 사항은 웹사이트(www.kwmc.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845)267-4159 /kwmc@kwmc.com

부목사 청빙

PCUSA 교단 소속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유승원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북미주 목회경험이 있으며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거주취업이 가능해야 하며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사진첨부), 신앙고백서, 추천서 3통, 최근 설교 2편, 학위증명서 및 안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8월 31일. 교회 홈페이지는 www.kpcmd.org

▲문의: kpcmd.apnc@gmail.com



뉴저지 성도교회 부흥성회에서 정덕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저지성도교회 선교축복 부흥성회  
“기적을 경험하자” 주제로 강사 정덕훈 목사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가 지난 12일부터 14일 저녁까지 선교축복 부흥성회를 가졌다.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강사는 정덕훈 목사(안산영광교회 담임). 정덕훈 목사는 첫날 “변화의 기적”(눅19:1-10), 둘째 날 새벽 “부르심의 기적”(출3:1-12), 저녁 “능력의 기적”(행1:8), 주일새벽 “요단강의 기적”(왕하5:1-14) 주일오전 “내 생애의 기적”(담전1:12-17), 오후 “행복의 기적”(신33:26-29)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덕훈 목사는 이전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10년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12시간 떨어진 깊은 산속 원주민선교를 10년간 하다가 다시 안산 영광교회로 부임했다. 담임 허상회 목사는 “시간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타게 하는 시간이었”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저지 성도교회)

이노비, KCS코로나경로회관 노인들 위로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지난 9일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한 가곡 콘서트를 가졌다. 150여 명이 참석 한 이날 이노비는 “그리운 금강산”, “신아리랑” 등의 가곡과 “항수”, “오빠 생각” 등의 동요를 함께 부르며 한국에 대한 향수와 타향살이에 지친 마음을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줄리아드와 서



울음대출신 성악가 염경목, 그리고 연대성악과와 맨해튼음대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그리고 다양한 수상경력으로 현재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성악가 이성은 등의 뮤지션 등이 출연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목회를 즐겨라” 양병희 목사 강의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강사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한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를 강사로 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5일 뉴욕순복음 안디옥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당일 아침 갑작스런 장소변경으로 예정됐던 9시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세미나에서 양병희 목사는 목회체험을 통한 간증과 함께 목회 팀을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회장 김종훈 목사는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이후 기독교 제2의 종교개혁은 평신도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다”며 “목회자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패러다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영안교회는 이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직훈련으로 교회부흥을 이룬 교회”라며 강사 양병희 목사의 사역을 소개했다.

양 목사는 “33년전 눈물과 사명으로 시작한 목회, 목숨 걸고 달려

지만 얼마 안가 탈진하고 목회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왔다”며 “목회를 즐겨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즐기는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②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필수를 정해 시간을 질로 사용하라. ③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뿐 아니라 다른 99마리의 양도

필라복음화대회 강사에 이종식 목사 결정

9월 27-29일, 장소 미정... 필라교협 실행위서 발표

대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이 매년 주최하는 복음화대회 강사로 뉴욕베아사이드교회 이종식 목사(사진)가 결정됐다. 필라교협은 지난 11월 오후 6시 한미음교회(담임 김영천 목사)에서 33회기 제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음화대회 및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1부 경건예배는 박동배 목사 사회로 강승호 목사가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믿음”(빌4: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황준석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 처리에서는 △산상 세미나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교협

미션지 발간 승인 △광복절 예배는 교협 자체로 드리며 △사아비 이단에 대해서는 임원진과 이단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 보고하기로 했으며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는 9월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개최기로 하고 성회 강사를 이종식 목사 결정했다. 장소는 추후 발표.

강사 이종식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M.Div)와 리폼드신학교(D.Min)를 졸업하고 예장미주합동 총회장 역임했으며 Discipleship Clinic 원장, Calnet 미주대표를 맡고 있다.

박동배 회장은 “성도들의 기도와 애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은혜와 진리 안에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뉴저지교협 제9차 월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 격려, 연합위해 소망음악회 개최  
뉴저지교협 제9차 월례회, 7월28일 필그림교회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가 지난 10일 제9차 월례회를 갖고 각 부 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뉴저지교협은 오는 28일(주) 회원교회 목회자들의 사역 격려와 연합을 목적으로 ‘소망음악회’를 개최한다. 오후 6시 장소는 뉴저지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

음악회 진행은 1부 예배, 2부 음악회, 3부 만찬으로 이어진다. 이날 합창과 독창, 합주, 첼로 독주, 중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출연진은 합창은 엘리자베스장로교회, 소망교회, 뉴저지장로성가단, 뉴욕기독부부합창단, 소망교회어린이 합창단, 엘리트밴드, 뉴욕필할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이날 미자립 교회 후원금(각 교단별로 전달)도 전달될 예정이다. 분과별 보고는 다음과 같다.

△선교분과(박인갑 목사): 뉴욕교협과 함께 진행하는 북미원주민 선교대회(8월 5-10일): 현재 매 주일 오후 5시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에서 약 15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음악분과(강영안 장로): 소망음악회 △체육분과(방갑순 장로): ‘교협 기금모금골프대회’ 후원금 4개 단체 전달(뉴저지상록회, 패밀리터치, 시민참여센터, CSO-작은교회 후원) △청소년분과(육민호 목사): ‘청소년 찬양경연대회’, 8월 25일(주) 오후 5시, 소망교회 예정. 참가 대상 및 분야는 청소년 찬양밴드이며 참가비는 팀당 100달러, 신청기간은 8월 1-15일(참가신청 njkchurches@hotmail.com).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필라안디옥교회 단기선교 출정식...총 200여명 파송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지난 10일 단기선교 출정식을 가졌다(사진). 국내 단기선교는 뉴저지 하이티와 뉴저지 캄보에 70명, 해외 단기선교는 영국 웨일즈, C

국, 파나마, 멕시코, 과테말라 5개국 10개 팀 130여명으로 총 200여명이 파송된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돋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돋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차세대리더 장학금 56,700달러 모금 7월 10일 현재, 남가주교협-OC교협 공동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우철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총 5만6천7백 달러가 모금됐다.

장래가 촉망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장학금 모금은 현재 남가주교

협이 LA지역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OC지역은 OC교협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남가주교협으로 2만9천 달러, OC교협으로 2만7천7백 달러가 남가주지역 교회와 업체 그리고 독자들의 정성껏 마련된 손길에 의해 전달돼 훈훈함을 안겼다. 차세대리더 장학금 모금은 오는 8월10일까지 계속되며 남가주교협(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Pay to order CKCSC) 혹은 OC교협(1200 Lambert Rd. Brea, CA 92821, Pay to order CKCOC)으로 보내면 된다. 장학금 신청서는 theckc.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경선 목사(213-55-1725)나 송규식 목사(714-699-0210)에게 하면 된다.

위해 다양한 일을 펼쳐온 '한-슈나이더 국제 어린이 재단' (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 대표 아더 한)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히 올해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르디의 레퀴엠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 한인 최초로 벨리니 콩쿨에서 1등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교수, 베이스 김영복 씨, 한인사회에 더없이 가까운 유명 테너 로버트 맥닐이 한 무대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음악인 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타이완, 일본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장엄한 베르디의 곡을 불러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을 찾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마지막 곡이 마쳐지고 전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내려간 후에도 객석을

남가주교협 접수 기금	
지원단체 및 개인	금액
로스앤젤레스교회(왕의정 목사)	\$1,000
나성동산교회(한기영 목사)	\$500
나성순복음교회(진우철 목사)	\$5,000
한길교회(노진준 목사)	\$1,000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2,000
남가주새소망교회(김성민 목사)	\$1,000
안디옥장로교회(지윤성 목사)	\$1,500
주님새문교회(박성규 목사)	\$2,000
미주평안교회(송정영 목사)	\$1,000
풍성안교회(박효우 목사)	\$2,000
Little Bean Cafe(헬렌박)	\$300
가주장외사(정영목 목사)	\$200
옥스퍼드호텔(김영희 권사)	\$5,000
파사데나인(최봉제 목사)	\$500
Free Leader(정미숙 목사)	\$2,000
오름학원(박종봉 목사)	\$500
매진나인브릿지(최유준, 정상현)	\$1,000
시온사플라이(최용진 장로)	\$1,000
Vision21(Angie Kim)	\$500
장영순 권사(나성순복음교회)	\$500
나성순복음교회 예배회	\$500
합계	\$29,000
OC교협 접수 기금	
은혜안교회(한기용 목사)	\$10,000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7,000
크리스천헤럴드(유우경 사장)	\$1,000
크리스천헤럴드 축구대회	\$3,000
홍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3,000
갈릴리새생명교회(민승기 목사)	\$2,000
홍만교회(김기동 목사)	\$1,200
OC영락교회(김경성 목사)	\$500
합계	\$27,700
총합계	\$56,700

## 북한고아 어린이입양 돕기 '평화의 음악회' 성황

### LAKMA와 LA코리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동주최

LA 한미음악인협회(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단장 최승호)와 한인교향악단(LA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윤

인상 교수)이 공동주최한 북한고아 어린이입양을 돕기 위한 '평화의 음악회'가 12일 오후 8시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탈북 어린이들의 생존과 자유를



탈북 고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평화의 음악회'가 월드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살롬장애인선교회 '힐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제10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힐체어 사랑이야기'가 14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와 강순례 사모의 수화통역으로 진행된 콘서트는 장선에 전도사가 개회기도를, 이사장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가 로마서 12장1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선규, 박성연의 피아노 2중주, 소프라노 최정원, 남

가주농악교회 수화찬양팀(지휘 권효순 집사), 살롬장애인선교회 SDM찬양팀, 소노로스 싱어즈(음악감독 이종현), 박트리오(피아노 박선규, 바이올린 박윤재, 첼로 박수정)의 피아노 3중주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전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연합찬양을 했다. 이날 콘서트는 김문일 목사(LA 남서울은혜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주최 제10회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에서 남가주농악교회 수화찬양팀이 수화찬양을 하고 있다

## 갈보리민음교회 설립9주년기념 부흥회

### 고대형 목사초청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교회설립 9주년기념 부흥회를 고대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를 초청한 가운데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신8:2-3)이란 주제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다.

14일 오후 4시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강신문 장로와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고대형 목사가 '더 큰 상을 바라보고'(히11:23-3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고등학교 4년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애쓴 것이 대학 직장 은퇴 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질에 따라서 영생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죄, 악한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씻어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씻어낼 수 있다. 세상에서 상급을 주

(박준호 기자)

떠나지 않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이날 음악회의 여운이 남기도 했다.

한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영상으로 6.25한국전쟁을 소개하는 등 휴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 희생 전사자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오이코스대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오이코스대학교(총장 김종인 박사)는 2013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신학과와 음악과로 각각 학사와 석사과정 학생모집을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재직증명서(유학생), I-20신청서(유학생) 등이다. 신청마감은 8월 23일. ▲문의: (510)639-7879

## 제2차 LA 한인 청소년 비전트립

'이민가정의 회복과 아름다운 청소년을 위한' 햇빛재단(대표 김영일 목사) 주최 제2차 LA 한인 청소년 비전트립이 오는 29일부터(월) 31일(수)까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와 스탠포드 대학교, UC버클리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저소득층 한인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무료(선착순 20명). ▲문의: (213)700-1397

##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무료 워크샵

지저스 키즈(대표 임은희) 주최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무료 워크샵이 20일(토) 오후 1-5시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임은희 전도사. 이번 워크샵은 갈보리채플에서 사용하는 4개월분 성경공부 교재, 설교, 공작재료 등을 배부하고 사용법을 설명한다. ▲문의: (213)422-0022

## 나성영락교회 설립40주년기념 심령대부흥회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설립40주년을 맞아 기념 심령대부흥회를 8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1:38)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문의: (323)227-1400

## '소중환사람들' 대표 고 김수철 목사 소천

소중환사람들(구 거리선교회) 대표로 수년 간 LA와 한국의 노숙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김수철 목사의 장례식이 16일 저녁 7시 가주장외사에서 열렸다.



음식과 찬양 등으로 섬겨온 김수철 목사는 2005년 1월 한국에도 노숙자사역단체인 '소중환사람들' 단체를 창립, 서울을 앞두고 노숙자 야침부담금으로 따뜻한 국밥으로 매일 천 여 명을 섬겨왔다. 또한 지난 십수년간 지역주민들과 교회 성도들로부터 제공받은 따뜻한 담요를 LA 일대 노숙자들에게 전달해왔다.

고 김수철 목사는 유니온교회에서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연주 및 음반제작 등 활발히 사역해왔으며 지난 2002년 1월 거리선교회라는 공화사역을 설립, 홀리스터제들의 무료급식과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사역과 재활센터를 운영해왔다.

매일 200여 노숙자에게 따뜻한

고인은 1955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신학대학신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주성경교 LA지방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상경 사모, 장녀 이혜진, 사위 이로운, 차녀 김태은 등이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갈보리민음교회 창립9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고대형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징: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러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한장총, 올림픽공원서 제5회 '장로교의 날' 개최

## "250여 장로교단 하나 되겠습니다"

25개 장로교단 4000여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눔과 섬김의 장로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5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1912년 설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성 아래 250개 이상으로 갈라진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교단 총회장과 교단 임원, 신학대 총장, 목회자, 성도 등은 전통적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김동영 예장 통합 부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합예배에서 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군포제일교회) 목사는 '생명의 나눔'이라는 설교를 통해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이뤄 섬김과 나눔 부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자 강조했다.

권 목사는 "한국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로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모두 한 아

버지 안에서 가족"이라며 "특히 교회는 죄와 허물 고통 형벌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때론 복이 시련과 징계라는 그릇에 담겨져 올 때가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맞은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위기상황에 낙심치 말고 진리를 가진 교회, 예수님을 모신 교회로서 생명 나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한국 장로교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참석자들은 이철호(예장 합신 총회장) 한영훈(예장 한영 총회장) 주준태(예장 고신 부총회장) 목사의 인도로 한국장로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 통일, 다음세대를 위해 간구했다. 1500명의 성도로 구성된 한국장로교연합찬양대는 웅장한 목성소리 '할렐루야'를 선보였으며, 한장총 전 대표회장 윤희구(장원 한빛교회) 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을 가졌다. 축도는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가 맡았다.

이어 '나눔과 섬김' 행사에는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의 메시지 선포,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시장, 회원교단 총회장의 영상 축사, 전병급 이종운 김선규 한장총 전 대표회장,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의 축사가 있었다. 주최측은 나눔 공동체와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장로교회가 밝힌 비전 선언문에는 성경대로의 개혁, '한 교단 다 체제' 연합, 녹색 청정, 소외이웃 돌봄, 차세대 신앙교육에 주력 등의 입장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분열의 아픔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장로교단들이 서로 존중하는 '한 교단 다 체제' 연합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녹색 청정의 환경을 자연과 사회 속에 이뤄가도록 실천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선진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 "동성에 조장 도덕교과서 즉각 수정하라"

## 한국교계 한목소리... 대책위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수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동성에 조장 교과서문제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억주 전용태 정각 최홍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도덕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본보 6월 11일자 25면 참조).

대책위에는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외에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인론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나라사

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합 등 4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불교계 인사인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 정각 승려도 공동위원장으로 대책위에 합류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동성에 조장하는 고등학교 도덕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청소년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해당 교과서는 비윤리적인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

인 것이라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의 근거들도 삼입하라"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과제를 삭제하라" "동성애자들의 불행한 삶도 기술하라" 등 10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뒤 교육부를 향의 방문, 성명서와 공문 등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일 한국검인 정교과서, 전제교육, 교학사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일보 등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성 소수자' 관련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제주, 1904년에 이미 자생적 신앙공동체 존재"

## 박정환 목사 논문서 주장

제주 지역의 기독교 복음 전래가 기존의 학설보다 4년 정도 앞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환(미주장로회신학대 한국사 무소·신학박사) 목사는 지난 6일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천기학회 수련회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목사는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1904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이미 자생적 기독교 신앙공동체 활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인 이기풍(1865-1942) 목사가 1908년 제주도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으

로 알려져 왔다. 논문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자생적 신앙공동체는 캐나다출신 의료선교사 에비슨(Oliver R. Avison·1860~1956) 박사의 회고록에 등장한 김재원에서 비롯됐다.

제주 출신인 김재원은 1903년쯤 폐질환의 일종인 농흉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찾았다. 오른쪽 늑골 전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에 이어 2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주로 돌아간 뒤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고백했다.

김재원은 제중원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 한국 최초의 신앙인으로 꼽히는 서상륜(1848~1926)

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 목사는 "서상륜의 경우, 1901년 6월부터 1903년 말까지 제중원에서 전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면서 "김재원은 그로부터 신앙의 삶과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배웠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김재원은 제주에서 매서인(賣書人·성경을 판매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웃옷을 들어 올려 움푹 파인 오른쪽 복부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죽다가 살아난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김재원에 이어 이기풍 선교사가 입도하기 한해 전인 1907년에는 금성리 지역에서 조봉호(1884~1920·항일 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가 형성돼 교육과 여성 운동 중심의 사회적 선교활동도 펼쳤다.

# 신천지 복음방 교육을 해부한다

## (3) 목회자에 대한 경멸감 심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거지말 포교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빼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천지는 복음방 3단계 과정에서 정통교회와 목회자를 경멸하게끔 만든다. 모든 목회자들을 거지 목자로 매도하고 한국교회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기성 교회가 오히려 단단한 식물을 전하는 자를 꺾어 죽이려 한다"며 "마지막 때가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풍요로운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

못해 해 달 별처럼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서 "이간자를 통해 창조되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신천지)에 속해야 한다"며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14과에선 "하나님의 소와 살진 짐승(배도자, 멸망자)을 잡은 혼인잔치(신천지)를 찾아 예복(올은 행실) 등(말씀) 기쁨(증거의 말씀)을 준비하고 택함 받은 자가 되자"고 독려한다.

15과는 '목자구분'(그림)인데 신천지는 여기에서 정통교회 목

# 교회를 부패집단으로 몰아 목회자 경멸토록 해

가는 것은 더 많은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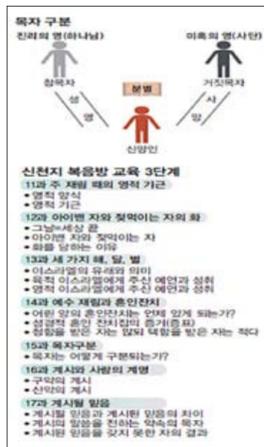
11과는 '주 재림 때의 영적기근'이다. 신천지는 종말의 때 기근이 온다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양식만 교회에 만연해 기근에 빠졌다"면서 "기존 목회자들은 악령이 들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취된 말씀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다음 은근슬쩍 계시의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하 충지종)"에 의해 전달된다고 가르친다.

12과는 '아이မ် 자와 찢먹이는 자의 화(禍)'이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적 이스라엘(유대교), 영적 이스라엘(기독교), 영적 새 이스라엘(신천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아직도 초보의 말씀인 '찢'만 먹고 자신들처럼 신앙이 성취된 실상인 '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천지는 13과(세 가지 해, 달, 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신민인 영적 새 이스라엘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예언의 내용을 깨닫지

회자를 미혹하는 영(사단)과 함께 하는 거지 목자로 지목한다. 그리고 "때에 따른 양식을 주는 충지종(마24:45-47),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이간자(계2:17), 약속한 목자·새 요한(계10장),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계12:5)가 참 목자며, 마지막 때 신앙의 예언대로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16-17과에선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재차 강조한다.

강신유 광주이단대책위원장은 "신천지가 정통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개, 돼지, 거지 목자로 경멸하는 진짜 이유는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 조직이 성장·결속되기 때문"이라며 "성경지식과 교회 기반이 전혀 없는 비신자들이 대상으로 한 포교에서 신천지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 한성연 새 대표회장예 성총회장 나세웅 목사

## "성결부흥운동 확산에 최선"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대 대표회장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장 나세웅 목사를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등 3개 성결교단의 연합기관이다.

나 목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한성연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결성이 회복되도록 두 분의 총회장님과 연합과 일치로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결부흥운동의 확산을 위해 성결연합부흥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기운을 전파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3개 교단의 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와 나성 총회감동 한기동 목사가 공동회장에 추대됐다.

한성연은 총회 안전 토의를 통해 각 교단에서 2인의 감사로 회계를 임명해 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6인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회원교단이 출연하는 분담금을 교단의 규모에 따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각 교단의 문화·체육 전문인 및 전문 교역자 15명으로 문화체육분과를 구성, 활동키로 했다.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조일래 기성 총회장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희망은 성결인"이라며 "성결을 외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축도는 한기동 나성 총회감동이 맡았다.

# 부산교계, 신천지 미혹장소서 1인 시위

부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목사)는 16일 부산 연산동 시청 인근 빌딩 앞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실체를 고발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호산나교회 성도들은 인근에 신천지의 교육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교대로 시위를 벌였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산하 1800여 교회들은 부산지역 신천지 미혹장소 22곳을 선정,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자 주위에서는 10~30명의 성도가 기도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신천지 미혹장소를 부산교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단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점막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선교 펴기

## 브라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브라질에서 저희가 섬기는 아찌바이아에 있는 생명의말씀신학교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맡겨진 신학생들이 말씀과 인격이 겸비한 주의 일군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부부는 2년째 결혼한 신학생 일곱 가정으로 구성된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세 가정이나 임신을 해서 바쁘게 지냅니다. 가정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부부가 말씀에 기초한 크리스찬 가정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다들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마음속에 대학생활 복음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Palavra da Vida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CÉU(Comunidade Evangélica Universitária)하는 대학생선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선교대회 때는 학교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 사역을 선보이고 또 많은 신학생들과 참석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브라질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 캠퍼스의 환경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파티, 술, 마약에 찌들어 방황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리오테제네이로 주에 있는 RJ FEDERAL대학에 아들을 데려다주려 갔던 어머니 딸이 대학문 앞에서 여러 학생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들이 생활할 기숙사 방에 그곳에도 남학생이 여학생과 함께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아들을 놓고 오는데 마치 지옥문 앞에 놓고 오는 것 같아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들도 또 브라질 교회목회자들도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대학생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쫓은 아니라 브라질 교회에 가서 대학생 캠퍼스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한 교회가 적어도 한 대학캠퍼스를 맡아서 선교를 하도록 도전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기는 올해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더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이 사역에 참여해서 이곳의 수많은 대학생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캠퍼스마다 영적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아내의 허리)
2.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인격이 겸비한 주의 일군들이 세워지도록
3. 대학선교 사역(CÉU)을 통해 브라질 교회들이 대학생 선교에 더 깊이 참여하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에서 김장호, 권애경 선교사 올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이메일: presb\_janghokim@hotmail.com (김장호 선교사)

# 세계종교 문화뉴스

##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사탄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위의 제목은 미국의 유명여류작가인 펄버(Pearl S. Buck)이 1962년에 출간한 단편소설 제목이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던 그녀는 이 소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잠들지 않고 중국을



공산화해 나간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종교나 종교개혁집단을 사탄으로 언급하면 도리어 욕을 얻어먹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된 현재도 개혁 종교세력들은 결코 잠들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타임지, 포린 어페어스와 같은 잡지들이나 국제 학술지들은 연일 개혁 종교개혁집단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다. 포린 어페어지는 최신호를 통해 유대교 개혁주의자들의 횡포를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2주 전 타임지는 동남아의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종교간 충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타임지는 특히 미얀마의 한 불교 개혁세력인 “미얀마 판 빈 라덴”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를 패시미 여진 미얀마 정부가 타임 아시아판 7월1일호를 발매금지 처분했다가 지난 25일미얀마 국영TV가 밝혔다.

미얀마는 아직 완전 개방된 자유의 나라는 아니다. 거기다 이슬람교 개혁주의자들과 원리주의자들은 계속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간에서 자살테러를 자행하거나 최근 북아프리카를 흔들어 주고 있다. 소말리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 케냐, 말리 등이 대상 지역이다. 최근 수단에서 이들 테러집단들이 6명의 군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에 대해 반기문 UN총장이 분노했다.

### 암울한 이집트 사태

지난달 30일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집트는 무려 1천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르시의 퇴진을 외쳤다. 군부가 3일 만에

제리에서 선거로 원리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자 군부가 강제로 끌어내리고 말했다. 물론 원리주의 집단이 잠잠하지 않았다. 터기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군부정치 대신 원리주의자인 현 엘도안 수상의 장악으로 많은 장군들과 언론인들이 투옥됐다. 세속주의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조용하다. 이코노미스트지(7월 6-12일자)는 무슬림형제단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있다.

1. 94%의 국민들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원치 않고 과거처럼 세속적 이슬람 국가를 원한다. 그럼에도 무슬림형제단과 무르시는 원리주의적 이슬람 국가를 고집했다. 무르시는 ‘현대판 바르’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세속주의자들과 10%의 콤파트 신자들과 중산층은 무르시 하야를 외쳤다.

2. 국민들은 빵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대개 혁명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보다 빵 문제로 시작한다. 무르시 집권 이후 이집트 경제는 한 마디로 곤두박질쳐서 실업률이 무바라크 때의 21%수준에서 31% 이상 증가,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이후 외국의 원조 중단 및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극심한 경제 파탄을 초래하였다.

3. 중요요직은 무슬림형제단들이 차지하고 말았다. 결국 무바라크 정권과 동일한 부패와 독식의 징조를 너무나 일찍 노출시키고 말았다. 특히 룩소로 주지사로 93년 룩소르에서 62명의 관광객 테러에 개입된 인물을 임명하였다. 초기 80%까지 울타리 무르시 정권의 인기는 최근 30%로 떨어지고 말았다.

4. 과거의 군부세력들이 침묵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군부개입을 주도한 국방장관 겸 참모총장은 사우디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사우디와 아랍 에미리트 등 걸프연합은 무슬림형제단을 매우 싫어한다.

그럼에도 무슬림형제단들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만 명의 순교자를 각오하는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집트 앞날이 암담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결론으로 과거 무슬림형제단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 더 폭력적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군부 역시 민주화로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중동의 정치적 맹주국인 이집트의 앞날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집트의 혼란이 이사가 예언한대로 “이집트와 아수르의 대로”(19:23-25)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날에 애굽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었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표준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

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19:19-20).

### “아랍 스프링은 실패했는가?”

이코노미스트지(July 13th-19th 2013) “아랍 스프링은 실패하였는가?(Has the Arab spring failed?)”라는 표제에서 아랍 스프링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흥미롭게도 60년대 이집트와 한국을 비교한 부분이 있다. “두 나라는 당시 평균수명도 일인당 GDP도 비슷했다. 오히려 이집트가 더 많은 도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글을 읽는 인구도 3/4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의 GDP는 한국의 1/5에 불과하다. 가난과 영양실조문제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9페이지)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반대개혁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한 영 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413-1600, (F) (213)383-2604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 (213)383-2600, www.laependoor.org</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김정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영):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www.nachimban.org</p>	<p><b>남가주주둔한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EM):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dm.org Tel: (213)5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Love 영예배) 주일영양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213)383-2600, www.laependoor.org</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 Tel: (7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b>동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b>동양선교교회</b>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열린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일꾼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6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송정병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3부: 오전 11:00 (성남부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ilj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2: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bcc.org Tel: (949)854-4010 / E-mail: beth@b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Tel: (562)694-6214</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 (626)339-6177</p>	<p><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교부주일예배: 오전 11:00 www.iaapc.org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 장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절단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절단예배: 3:55(월-토) 2:42(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l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 오후 7:30 www.gc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50(EM) 주일 4부예배: 오후 1:15(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창립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96-4400 Fax: (718)996-0074 www.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5 사모의 가정 가꾸기(3)

결혼의 삼요소 중 번째는 연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연합이란 두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two becomes one).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성이 만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대상을 찾는 청년들을 보면 서로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 이성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 함께 살다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었으므로 서로 다른 부분을 알아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 결혼의 두 번째 요소 연합: 상대 이해하며 적응해야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 편한 방식 따라 수고하는 것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적응하기(Adapt)

배우자의 서로 다음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의 재질은 흙이고 여성의 재질은 뼈입니다. 이것은 성향을 표현해줍니다. 기호가 다릅니다. 남성은 시각과 후각이 발달한데 비해 여성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되었습니다. 남성의 시야는 좁고 깊은데 비해 여성은 넓고 얕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짙은 향수냄새를 풍기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들려서 혼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멋진 남성이 지나가도 결혼질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할 수 없지만 여성들은 동시에 몇 가지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두 가지를 못하는 남편을 볼 때 답답합니다.

대화의 형태로 다릅니다. 여성들은 목적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나열하는 형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결론부터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 듣기도 전에 결론을 알고 싶어 다그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면 아내들은 섭섭해 합니다. 아내들은 이야기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짜증을 내면서 “여보, 직장에 나가기 싫어. 부장이 보기 싫어 짜증나거든”하며 머리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런 아내를 보는 남편은 당장 구직광고판을 보면서 아내의 직장을 찾아봅니다. 아내는 더 짜증이 나서 “나, 지금 머리아파 죽겠어”하며 신경질을 부리며 쏘아부칩니다. 남편은 타이레놀을 갖다주며 “이것 먹어”

라고 합니다. 아내는 또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타이레놀 먹고 싶다고 했어?” 남편의 말 “그럼, 타이레놀이 아니고 아스피린인가?”

아내들은 대화 자세를 관계에 두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알아주지만 하면 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오늘 수고 많이 했네, 고마워!” 한마디면 아내들은 머리 아픈 것도 다 나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때 “그럼, 처음부터 안아달라고 하지, 왜 머리아프다고 하는지...” 아내들의 마음을 남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랑의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미국인부부가 30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절차를 밟기 위해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닭요리를 시킨 후 음식이 나오자 닭다리를 잘라 아내에게 줍니다. 변호사는 마음을 놓으면서 이 부부는 잘하면 다시 합하게 될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여보, 당신은 30년간 나에게 닭다리를 주었어, 나는 닭다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가슴살을 좋아하는데...” 하는 말에 남편의 대답은 “여보, 무슨 말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먹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어. 30년동안 먹고 싶은 닭다리를 한 번도 내가 먹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오?”하면서 티격태격 다투다가 결말을 맺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나는 생각해서 아내에게 닭다리를 주었는데 아내의 닭다리를 좋아했던 말인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아내도 한참 생각에 빠졌습니다. “

아니,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닭다리를 남편이 좋아하면서 나를 주었던 말이지” 미안한 생각이 들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습니다. 한참 만에 어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내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보, 미안한 사랑해”라는 문자를 남긴 전화를 손에 잡은 채 운명만 뒤엎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주고받을 때 드디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대로가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적응해주기 위해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부부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닌 상대방에게 편한 방식을 따라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주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이 찢어지는 아픔과 통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할 때보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 줄때 감동을 받고 헌신하게 됩니다.

적응의 명수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감동시킨 사랑은 곧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어떤 죄인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은 사랑의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지존자의 그늘(시91:1-16)찬543장

안식일 찬양으로 알려진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보호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알게 합니다. 첫째, 누가 보호하시나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으신 지존자가 보호하십니다(1). 그래서 시편가자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어디에서 보호하십니까? 원수의 습격한 공역에서 구원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음모, 극한 염병, 밤의 놀름, 백주의 화살, 흑암의 염병, 그리고 백주의 파멸이 엄습해도 하나님은 절대보호자가 되십니다. 셋째,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장막을 막으신다고 했습니다(10). 나의 발로 원수의 발을 밟게 하신다고 했고(11-13) 나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14).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15:5)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조정을 맞추었습니다(엡1:3). 그 안에 거하는 신자는 절대보호를 보장받은 복된 자입니다.

### 화 흥왕하는 신자(시92:1-15)찬539장

본문의 시인은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찬미합니다. 무엇이 흥왕의 근거이며 어떻게 흥왕합니까? 첫째, 주의 인자와 성실이 부흥의 근거입니다. 1-5절에 보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한 진실이 절대흥왕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는 그 분이 언제나 사랑과 성실의 원천인 성경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둘째, 흥왕하는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뿌를 높이 드시고 악인의 보응을 보시고 마침내 망하게 하시는 궁극적 승리가 성도에게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넘치고 잎이 청정한 나무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총만함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 수 와서 경배하라(시95:1-11)찬53장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그분께 드릴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첫째, 예배대상. 땅의 모든 것, 높은 산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죄에서 구해 우리를 “그의 양”,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둘째, 예배방법. 그에게 나가는 적극적 행동으

로 예배하며 최고의 예술인 시, 찬양, 노래와 즐거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결과. 참 예배는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별미 같은 복을 받게 합니다. 참 예배자의 마음에는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영광의 주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께 나아가 경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 목 주를 경배할 이유(시96:1-13)찬43장

본편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의 성품 때문에 예배합니다(6-7). 새 노래와 거룩한 예물로, 존귀와 위엄으로 예배해야 하며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성소에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성품에 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총만한 은혜와 진리 때문에 경외하게 되었습니다(요1:14). 둘째, 그분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5). 만반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세

상의 모든 우상은 참 신에게 돌릴 영광을 가로챈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독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새 노래와 예물과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의의 통치를 인하여 경배합니다. 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10).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가자처럼 분명한 이유를 알고 경배합니다.

### 금 여호와의 통치(시97:1-12)찬362장

7편은 여호와의 통치 결과를 생각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통치가 어떠한가? 찬양해야 할까? 첫째, 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통치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둘째, 그 나라의 통치 영향은 만물에 미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밟은 땅이 떨며 밀갈이 녹아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악을 미워해야 하며 그의 거룩한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의가 지배하는 가정을 꾸며 그 의의 기초위에 서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찬양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 토 참 예배(시99:1-9)찬338장

참예배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히 그를 찬양하며 예배할까(5)?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1-2).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거둔 난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합니다(요4:). 주님의 다스림은 구체적으로 신자의 영에 성령을 보내셔서 연합함으로 성령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고전12:13). 둘째, 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합니다(3-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여 먼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 분 앞에서의 선과 의만이 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지들의 분을 따라야 합니다(6-9). 모세, 아론, 사무엘 같은 참된 예배자의 본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두운 우리 시대를 바로 사는 길이 어떤 때든지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8275,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8275,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포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야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8491-5,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3길 복수 교문앞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제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세 Tel. (82)2-440-9099,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8-053)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철민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문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신림3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998-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3동 713-26호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서울 (02)388-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서우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b>시온신학교</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진영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3동 713-26호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제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유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성경교과: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유3동 79-12	<b>주인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인헌동역사 부흥구 신관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상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교과: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성경교과: 새벽 5:00(월-토) 금요일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5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6-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기종교: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mk@paraguay.com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1)

-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묵미술선교회 회장)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기드론골짜기

## E. 예루살렘 지역

E-6. 기드론 골짜기(Kidron Valley)

기드론이란 '탁한', '흐린', '어두컴컴한'이란 뜻으로 다윗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윗성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성의 오른쪽과 감람산의 왼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다. 성경에서는 자주 기드론 시내로 말하기도 한다. 느헤미야는 아예 '시내'라고만 말했다. 건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나 우기에 흐르는 물은 남쪽으로 흘러 남서쪽에서 오는 힌놈의 골짜기의 물과 만나 유대광야를 지나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상을 이곳에서 불태웠는데 그때부터 이 골짜기는 우상이나 제단을 태워버리는 소각장이 됐다(왕상15:13).

이 골짜기 양쪽은 무덤들이 많다. 특히 요아스 왕 때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라의 무덤과 헤지르의 무덤이 나란히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스가라 14:4, 에스겔 43:2, 4의 말씀에 따라 다투어 이곳을 무덤으로 쓰는 통에 온통 무덤으로 돼있다. 특히 감람산 쪽 언덕에는 부활의 날을 대비해 미리 무덤을 예약하는 등 뼈코히 무덤들(가묘)이 들어서 있다.

E-7. 히스기야 터널(Hezekia's tunnel)

히스기야 터널은 주전 8세기 후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히스기야 왕에 의해 공사된 수로다. 북쪽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을 닫아야 하기에 성내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완공한 것이다. 길이 533m로 25-30여분 걸어가면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게 돼

있다. 즉 실로암 연못에서 기혼샘까지 암벽터널을 양쪽에서 파고 들어와 만나게 했는데 만난 높이 차가 32cm밖에 안 난다고 하니 경사각이 0.6% 된 것이다. 끄깃도에 있는 아합 왕이 파놓은 저수조를 내려갈 때는 제법 어지러웠으나 이곳은 괜찮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터널을 완공할 때 완공기념비로서 벽에 돌에 새긴 글 판이 있었는데 1880년 발굴한 당시로부터 10년 후 그리스인에 의해 도굴돼 골동품상에 게 간 것이 오스만터키에서 사들



예루살렘에 자리잡고 있는 유대인의 묘



압살롬의 묘

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조품만이 박혀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히브리 원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여섯 줄로 된 600자의 글로서, '3규빗(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끼리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쳤다. 물은 (기혼)샘으로부터 1200규빗(525m)을 흘러 나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서 잠시 워렌수로 가나안터널을 언급하자면, 1838년 미국의 로빈슨이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발견했으나 그 후 영국의 워렌이 끝까지 발굴해 기혼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로 내려가는 11m의 수직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Warren Shaft'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것은 여부스족이 이미 만들어 놓은 비밀통로지만 다윗이 기혼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차지한 것이다. 우리는 워렌수로를

내려가 본격적인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되는 곳 즉 물이 완만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입구까지 갔다. 여기서 계속 컴컴하고 좁은 터널을 진행해 약 30분간 실로암까지 갈 사람은 떠나고 나머지 일행은 '가나안터널'이라는 메마른 터널로 10분 정도 들어갔다 돌아 나왔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온 우리들은 실로암으로 나올 일행을 만나기 위해 실로암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면서 2000년도 넘었다는 오래된 종려나무를 보았다. 가운데가 비어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다시 새잎이 나고 있었다.

또한 회칠한 자국이 남아있는 무덤도 보였다(실제 시신이 없을지 몰라도 칠한 흔적이 있다). 회칠한 것은 죽은 사람이 그 속에 들었다는 이스라엘식 표시이므로 예수님의 표현이 생각났다. 힌놈 회칠한 무덤을 여인들이 속은 미운데 같은 곱게 화장으로 감춘 것처럼 뭔가 진실하지 않고 겉만 화려하게 꾸민 것을 비유로 한 말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는 패부를 찌르는 비유다. 속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것이니 '꾸민 것'이 아니라 '죽은 것(시체)'을 말하는 것이다.

E-8. 실로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칠해 이겨 발라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바로 이곳!(요9:7) 우리가 먼저 히스기야 터널로 간 탐보다 도로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실로암에 이르렀다. 복음서가 '실로암 내게 주소서'라는 가사가 나오는 복음서를 불렀다. 그때 터널 출구에서 터널로 들어갔던 일행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도 반가운데 그들은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3명의 1명꼴은 랜턴을 들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애를 먹은 모양이지만 추억은 진하게 남으리라.

이 터널을 뚫고 완공비문을 세운 당시의 기공들은 어떠했을까... 614년 페르시아 침략을 받은 이래 그대로서 (약간의 정비만 했을 뿐) 실로암을 히스기야 터널과 연관 짓지 않고 보면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터널 뒤편에는 유치원이 세워져있다. 그 벽에 작은 아치형 창문처럼 뚫린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창자가 앉아있어 귀여웠다. 화려한 성곽보다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축적이 생생한 이런 실로암 연못 같은 곳이 더 순례하기가 좋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슬람 문화권과 깊은 관련이 없는 곳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일까? 이곳에서 문 목사님 인도로 기도와 찬양이 한동안 계속됐다.

E-8. 엔노겔(EnRogel)

우리나라 자음접변 현상으로 엔노겔이 노겔로 쓰였다(성경에는 '엔노겔'로 표기, '표백자의 샘'이란 뜻).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것으로 기혼 샘과 같이 지금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양대 급수원이다. 기드론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와 같이



실로암연못으로 연결된 히스기야 터널

흔용해 쓰듯이 엔노겔도 '엔노겔 언덕'과 같이 쓰인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엔노겔 근처 소헬렛(Zohelath) 바위 곁에서 솔로몬만 빼놓고 다른 왕자들 과 요압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각료들을 불러 모아 많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왕으로 옹립된 것이다. 이 선포소에서 들은 밧세바의 급한 진언에 의해 놓여서 수백 동년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던 다윗이 기혼으로 모이라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왕상1:1-53).

이전에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을 피해 이곳에서 숨었고 그 후엔 바후림 우물에 숨었다(삼하 17:17, 18).

E-9. 힌놈의 골짜기(Hinnom Valley):게헨나(Gehenna)

힌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 밑 남쪽 계곡으로 약 1Km정도. 기드론 골짜기와 만난다. 기드론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로도 불리며 에스겔43:2, 4 마지막 날의 구원의 장소로, 힌놈의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과 지옥불의 지옥으로 상징되고 있다.

Ge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란 뜻이고 사람을 Hinnon과 합성된 것이다. 게헨나는 갈대아 전승에서는 '통곡, 비명의 골짜기'라고 풀이된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에 게 아들을 받치려 불로 지나가게

할 때 비명이 날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로 지나간다는 것은 지금의 서커스나 인도 묘기 중에 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에 달구어 죽어갈 때 물통의 벌린 두 팔에 얹어 타죽게 함으로써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저녁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실 때나 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등 수많은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시면서 이 힌놈의 골짜기를 보셨을 것이다. 게헨나는 신약에 12번 나오는데 9번은 '지옥(hell)' 단어로 채택하셨다. 구약의 힌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상숭배를 벌하시는 곳으로 이곳을 지목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천국과 대조적인 곳을 사용하신 것이라.

골짜기 바닥에서 올라가면 가뭄 유다가 예수님을 성인 노예의 몸값인 은 30량에 판 값으로 산 땅의 이름이 있다. '피의 밭' 즉 아겔다다다. 지금은 그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리스정교회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 후세에 게 경고하며 참회하지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듯 수직선만 비석을 세운 것처럼...

이곳은 본디 여호수아 때만해도 유대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표할 때 사용했으나(수 15:8, 18:16) 유대 3대 왕인 아사 왕이 어머니의 우상을 태우면서, 또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부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주술과 영매 등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후일 전쟁 중에 회개하고 다 불태우게 되면서 심판과 저주라는 뜻이 부각됐다(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지만).

요시아 왕 때는 이곳이 쓰레기장으로서 토기조각까지 버리기도 했으나 요즘엔 이스라엘 측에서 공원을 만들어 예술회관 등 신선한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비유로 진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단지 상징적인 것뿐이라며 이 골짜기를 들먹인다. 이곳이 소각장이어서 불에 타는 것을 연상해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며 연옥을 언급하려니가 지옥을 축소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6월 13일(목) ~ 20일(목)  
7월 18일(목) ~ 25일(목)  
8월 15일(목) ~ 2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